

# 여수교육청, '꿈을 찾는 늘봄' 스탬프 진로체험 성료

### 학부모와 함께 여수지역 초등학교 23교 270여명 참여 진로체험처 6곳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 실시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2023. 여름방학 학부모와 함께하는 '꿈을 찾는 늘봄' 스탬프 진로체험을 성황리에 마쳤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진행된 '꿈을 찾는 늘봄' 스탬프 진로체험은 여수교육지원청 우수 체험처로 선정된 진로체험처 6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체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수지역 초등학교 23교 27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직업 계열(공예, 요리)을 선택하고 체험주간동안 스탬프 체험을 하는 이 체험은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예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특성, 흥미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도 알차고

결과물도 매우 좋았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금열 교육장은 '이번 늘봄학교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학생들이 여수지역 우수 체험처에서 스탬프를 모으도록 하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진로체험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완도교육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완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사)공감인어스 김경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장애인이 겪었을 차별과 장벽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 또한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나부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성 북일초,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프로그램' 개최

###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관심 고취하기 위해 진행



장성 북일초등학교는 최근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약하고 앞으로 있을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32명이 한데 모여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찾아가는 동계올림픽에서는 '바이애슬론', '스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의 실제 종목을 학교 체육관 특성에 맞게 변형한 경기와 함께 '다트판에 공 맞히기', '국가대표 선수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었다. 조금은 생소했던 동계올림픽 종목들을 접해보고 체험해 봄으로써 동계올림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장성=김수권기자

## 담양군, 소규모 유치원 연합 놀이 day 운영

유아들의 놀이 주도성과 사회성,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담양군 5개 소규모 유치원(담주·금성·월산·용면·봉산)이 담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곳으로 모였다. 첫 번째 놀이주제는 '신나는 캠핑'으로 캠핑장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도 하고 화로에서 맛있는 꼬치구이, 텐트에서 낮잠, 누워서 밤 하늘 별 관찰 등 유아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랄수 신나는 캠핑을 놀이를 하였다. 두 번째 놀이주제는 '바닷속탐험'으로 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해양생물로 변신하여 바닷속을 꾸며진 공간 여기, 저기를 탐험하고 다른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해저터널 통과, 바닷속 슐래잡기 등 놀이와 멋진 해저로 변신하여 해적배 썰매를 친구와 협력하며 밀어주며 인근 유치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담양=박종영기자



함께 진행한 선생님들 또한 "소규모 유치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놀이를 이렇게 함께 진행하니,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좋은 경험과 추억을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연합 놀이 day운영을 계획하였다.

## 영암 학산초, 마을과 함께 팔칼국수 만들기 체험 실시

### 3년여 만에 마을에서 함께한 의미있는 체험

영암 학산초등학교는 최근 가운데리 마을학교와 함께 학구내 전해마을로 찾아가 팔칼국수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학교 문을 나가 3년여 만에 마을에서 함께한 의미있는 체험이었다. 주말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을회관에는 열분 이상의 마을 어른신이 모여 아이들을 위한 재료 준비가 한창이었고, 아이들이 도착하자 친손주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다. 유치원부터 고학년까지 힘든 내색 없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준비된 반죽을 밀고, 칼로 잘라 면을 만들었다. 마을 어른신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쉽고 안전하게 칼국수 면을 만들 수 있었다.

한 시간가량 면을 만들고 팔칼국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자유롭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용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팔칼국수가 만들어지고 먹기 전, 마을 학교 대표님께 팔의 효능(피부 미용, 혈압조절, 장 건강 등)과 팔을 이용한 음식을 알아보고 맛있게 팔칼국수를 먹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그릇을 푹푹 비워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마을 어른신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랜만에 조용한 우리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해



오려려 큰 힘을 얻었다.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체험에 대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영암=조대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